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의료원, 세계인 치유에 나섰다.

동국대학교의료원은 나눔의료 해외 확대를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얀마 만달레이에 있는 시립병원과 주요 사찰 등을 방문하여 긴급 의료지원과 함께 수술이 필요한 수혜자를 선별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미얀마의 낙후된 의료환경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픈 사연이 본원에 접수되면서 나눔 의료의 아름다운 뜻이 전 세계로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성사되었다.

자비 나눔 기금은 이미 2월 17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2명의 환우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고, 나눔 의료의 좋은 의의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의 동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해외 나눔 의료팀을 지휘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이상형 교수는 “미얀마 만달레이는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현지에서 고난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환우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히고, “우선 수혜자 선별을 3월 중에 확정하고, 5월 중 수술치료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 나눔 의료사업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원의 자비 나눔 기금 및 승가의료기금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앞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가 있는 곳이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2 침구과 김갑성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침구과 김갑성 교수는 2월 25일 밀레니엄호텔에서 진행된 제30차 대한한방병원 정기총회 개회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김 교수는 시상식 후 인사말에서 “2016년은 수련생활을 끝내고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직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대한한방병원 정기총회에서 표창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며, 이 상은 후진 양성과 진료, 연구에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병원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갑성 교수는 현재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과 교실 주임교수와 일산한방병원 침구과 교수를 맡고 있다. 또한, (사)대한한의학회 회장을 4년째 연임하면서, 한방병원과 한의학 발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03 감염병 재난 대응 훈련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월 29일 1층 로비에서 감염병 재난을 주제로 재난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감염병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참여했다. 고열, 기침을 호소하는 감염병 의심환자가 고위험 신종 감염병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중환자실까지 안전하게 입원하는 가상상황으로 실시했다.

일반검진센터와 격리외래, 음압텐트에서 진행된 이날 훈련은 감염병 환자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착용해보고 환자가 입원하는 일련의 과정 등을 훈련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 입원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앞으로도 해외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반복 훈련을 지속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명과 자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 내 대표 의료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